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 - 태권도 경기종목의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

김영진(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정명규(세한대학교 조교수)
· 전민우(경희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태권도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온라인플랫폼(Google Forms)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최종 분석대상 579부), 이후 IBM SPSS 28.0 및 IBM AMOS 21.0을 이용하여 각각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측정모형분석에 입각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 구조방정식모델(SEM), 다집단 분석(MGA) 등을 실시하였다. 서술된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의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과 더불어 품새 및 시범종목 사이에서 그 영향력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개별 경기종목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주제어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 다집단 분석

* yesjmw@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이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관한 효과적인 중재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만족(exercise satisfaction)이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운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자 운동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유용준, 정구인, 2018; Cheladurai & Riemer, 1997), 특히 팬데믹(pandemic) 장기화에 의해 야기된 태권도 훈련 및 경기환경 전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수개인의 운동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과 다른 관점 또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재전략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그간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주로 선수개인의 차원에서 심리요인 간의 관계 및 유효성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은지, 정명규, 임신자, 2018; 김은철, 전익기, 2021; 오영택, 양명환, 2019; 정태경, 정명규, 2021; 최정일, 정명규, 임신자, 2017). 그러나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나 코칭 및 리더십 유형, 그리고 선수-지도자 교환관계 등이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직접적인 선행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김경렬, 김성규, 박명국, 2013; 김민정, 조광민, 2010; 서강석, 안창식, 2019; 오영택, 양명환, 2019; 윤정호, 박현태, 한상일, 2022; 이동준, 2017) 선수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넘어 지도자와의 관계를 집중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만족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기초로 할 때,

태권도 지도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선수들의 운동만족 간 실증적인 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비언어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원우영, 김종식, 김대은, 김현륜, 2019; 이상일, 2021, 이호열, 박재우, 2012), 비언어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운동만족과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한다는 것은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이란 선수와 지도자 간에 이루어지는 면대면(face-to-face)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언어적 즉, 유사언어, 신체언어, 신체적 외양, 공간언어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체 움직임이나 공간, 음성, 발음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이정확, 이지혜, 안선영, 2018; 이호열, 박재우, 2012; Sundaram & Webster, 2000). 각 요소들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먼저 유사언어(paralanguage)는 자신감, 목소리 속도, 톤과 강세, 발음의 정확성 등을 의미하며, 신체언어(kinesics)는 호응과 미소, 시선처리, 제스처 등을 뜻한다. 그리고 신체외양(physical appearance)은 자세와 외모, 호감도 등의 대한 개념을 말하며, 마지막 공간언어(proxemics)는 장소의 크기와 온도, 편안함 그리고 공간배치의 적절성 등을 뜻한다(김지영, 주형철, 유인애, 2013; 이호열, 박재우, 2012; 황민경, 이성노, 2021; Sundaram & Webster, 2000)).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의미한 역할로서의 가능성은 이들 간의 실증적인 관계규명을 위해 진행된 관련연구의 결과들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우영 등(2019)은 펜싱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들의 신체언어, 외양언어 등이 팀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조송현(2021) 또한 유소년 축구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주효한 선행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하는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만족에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정지영

과 정승훈(2022), 필라테스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수업만족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황민경과 이성노(2021) 등은 만족이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효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 선수들을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은 태권도 경기종목별 선수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겨루기 및 품새 선수간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운동몰입의 차이를 밝힌 정국현(2010)과 태권도 전공에 따라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밝힌 김영진과 정명규(2021), 그리고 경기력에 대한 선수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효과성이 경기종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정명규(2020), 송남정과곽정현(2022) 등 다수의 연구들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태권도 경기종목별로 선수들 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들에 관한 심리적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개별종목들을 태권도라는 하나의 단일종목으로 보고 그 결과들을 통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관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목 간 영향력 차이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개별 종목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중재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MGA(multiple group analysis, 다집단 분석)를 활용하여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MGA의 경우,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서로 다른 표본을 비교할 때 자주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우종필, 2016), 그와 같은 특징에서 MGA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과는 향후 태권도 경기종목 특성에 따른 선수개인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및 활용방향

성 등을 제시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필요성에 근거하여 태권도 선수개인의 경기종목에 따른 유용한 운동만족 증진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MGA를 이용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관계 및 경기종목에 따른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해당변인들에 관한 후속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운동만족이라는 선수개인의 긍정적 정서함양에 대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주요 예측변수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필라테스, 골프, 축구, 펜싱 등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운동만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원우영 등 2019;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황민경, 이성노, 2021).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바와 같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가 대상 및 환경, 그리고 상황 등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원우영 등, 2019; 이상일, 2021; 이현정, 백재근, 2021; 임혜승, 김종우, 신승호, 2022;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현기진, 신승호, 유도상, 2017), 태권도 경기현장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겨루기, 품새, 시범 등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선수들 간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김영진, 정명규 2021; 송남정, 곽정현,

2022; 정국현, 2010; 정명규, 2020)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태권도를 하나의 단일종목으로 보고 각각의 결과를 통용하여 중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기종목에 따른 수준 차이를 구체화하여 서술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향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전략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선수개인의 운동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과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11월 ~ 12월 약 2달여간의 기간 동안 url 전송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응답에 대한 연구자들의 신뢰성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579 부를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먼저, 성별에서 남자 342명(59.1%), 여자 237명(40.9%)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종목에서 겨루기 190명(32.8%), 품새 196명(33.9%), 시범 193명(33.3%)로 확인되었다.

2. 검사도구

이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에 관해 자기보고식 평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총 21 문항으로 검사도구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검사도구로 제작된 설문지의 구성 및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및 종목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추나영, 배성우 및 조송현(2013), 이상우(2016), 이정학 등(2018), Sundaram과 Webster(200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최초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유사언어 4문항, 신체언어 4문항, 신체외양 3문항, 공간언어 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 운동만족은 김은지 등(2018)과 최정일 등(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최초 단일요인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변수정제 과정을 거쳐 운동만족 단일요인, 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통계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IBM SPSS 28.0을 통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다음 IBM AMOS 21.0을 통해 측정모형분석에 근거한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와 MG-CFA(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MGA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사용된 검사도구인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측정모형분석에 입각한 CFA 및 Cronbach 's α 산출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과정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MI(modification indices) 등에 근거한 변수정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 <표 1>에 표기된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의 상세설명으로서 먼저, 미국심리학회(APA)가 제안하는 모형적합도 검정지수 CFI($\geq .90$), TLI($\geq .90$), SRMR(검정기준 $\leq .10$), RMSEA($\leq .10$) 모두를 충족하는 결과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후 추가분석을 통해 AVE .5 이상(.665 ~ .727), CR .7 이상(.870 ~ .914), α .7 이상(.913 ~ .956)의 측정치를 검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우종필, 2016; Garrido, Abad & Ponsoda, 2016; 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Steiger, 1990). 더불어 상관계수 최대 .449의 제곱(.202) 보다 AVE 지수 최소(.665)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판별타당성 또한 충족되었음을 추정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표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Factor	Item	<i>B</i>	β	<i>t</i>	α	AVE	CR
유사언어	nvc1	1	.881				
	nvc2	1.014	.900	30.271***			
	nvc3	.991	.875	28.820***	.914	.665	.888
	nvc4	.910	.759	22.422***			

신체언어	nvc5	1	.907				
	nvc6	1.013	.912	35.589***	.951	.727	.914
	nvc7	.983	.926	37.006***			
	nvc8	.957	.901	34.443***			
신체외양	nvc9	1	.853				
	nvc10	1.047	.922	28.670***	.913	.690	.870
	nvc11	1.005	.872	26.820***			
공간언어	nvc12	1	.895				
	nvc13	1.047	.912	32.921***	.927	.677	.893
	nvc14	.984	.879	30.554***			
	nvc15	.932	.802	25.471***			
운동만족	es1	1	.897				
	es2	1.093	.911	34.669***	.956	.709	.907
	es3	1.117	.935	37.095***			
	es4	1.089	.932	36.816***			
CMIN(df)= 211.077(142), CFI= .993, TLI= .992, SRMR= .022, RMSEA= .029							
*** p<.001							

2. 상관분석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을 통해 단일차원성이 규명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구성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표 2). 분석결과로서 .138 ~ .449 수준에서 상관계수 도출하였고($p < .01$), 보편적 검정기준($\leq .80$)을 기초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다중공선성(discriminant validity)의 이슈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a	b	c	d	e
a.유사언어	1				
b.신체언어	.311**	1			
c.신체외양	.234**	.223**	1		
d.공간언어	.205**	.175**	.248**	1	
e.운동만족	.256**	.181**	.449**	.138**	1

** $p < .01$

3.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MG-CFA에 입각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을 검증하였다(표 3). SEM에서의 가설전환이나 선행 모델 유의성에 따른 결과 등의 이슈를 근거로 본문에서의 측정동일성은 비제한 모델(free)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λ) 간 관계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로서 free와 λ 모델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Delta\chi^2(28)=30.128 < 41.337$), 이를 근거로 구성개념에 대해 겨루기, 품새, 시범선수 모두 서로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하였다(배병렬, 2017; 우종필, 2016).

표 3.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Model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f)$	Sig.
free	576.647	426	.985	.982	.025		
λ	606.775	454	.985	.983	.024	$\Delta\chi^2(28)= 30.128$	기각
λ, ϕ	679.029	484	.981	.980	.026	$\Delta\chi^2(58)= 102.382$	채택
λ, ϕ, θ	822.843	522	.970	.971	.032	$\Delta\chi^2(96)= 246.196$	채택

note 1. 자유도(df)가 28, 58, 96 일 때, $p < .05$ 기각 기준치는 각각 41.337, 76.778, 119.871 다note 2. Δ = 변화량

4. 가설검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들의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가설 1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검증에 앞서 SEM을 통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H1을 검토하였다<표 4>.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서 연구모형 적합도에 대해 미국심리학회(APA)가 제안하는 지수들을 모두 충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우종필, 2016; 정명규, 2020; Garrido et al., 2016; Schermelleh-Engel et al., 2003; Steiger, 1990), 이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경로계수($B=1.705$, $\beta=.614$, $p<.001$)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확인되어 H1을 채택하였다.

표 4. 연구가설 1 검증결과

Path	B	β	t	Sig.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운동만족	1.705	.614	7.237***	채택
CMIN(df)= 53.456(19), CFI= .988, TLI= .982, SRMR= .043, RMSEA= .056				

*** $p<.001$

2) 연구가설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GA를 활용하여 설정된 H2를 검토하였다<표 5>.

MGA와 관련하여 비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해야한다고 배병렬(2017)은 지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측정치를 살펴본 결과, 겨루기($B=2.347$, $\beta=.674$, $p<.01$), 품새($B=2.202$, $\beta=.717$, $p<.001$), 시범($B=.861$, $\beta=.482$, $p<.001$) 별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가 다르게 발현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고, 이때 품새와 시범종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또한 규명하여 H2를 부분적으로 채택하였다.

표 5. 연구가설 2 검증결과

Path	Regression Weights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Sig.
	겨루기	품새	시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운동만족	2.347**	2.202***		-.153	기각
	2.347**		.861***	-1.785	기각
		2.202***	.861***	-2.615	채택

*** $p < .001$, ** $p < .01$

IV. 논의

본문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선수들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유용한 운동만족 증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인과관계 및 그 관계에서의 경기종목에 따른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고, 이후 연구가설들의 검증결과들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관계규명에 관한 H1을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 경로계수의 긍정적인 유효성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검증된 내용은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주효변수임을 의미하는 결과로, 중학생 이상의 펜싱 선수(원우영 등, 2019), 대학 태권도 선수(이상일, 2021), 검도 선수(임해승 등, 2022; 현기진 등, 2017), 유소년 축구 선수(조송현, 2021), 청소년

골프 선수(정지영, 정승훈, 2022) 등 다양한 연령 및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당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검증결과와 타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운동만족 즉, 운동에 관한 선수개인의 긍정적인 평가 또는 정서(유용준, 정구인, 2018; Cheladurai & Riemer, 1997)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관련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태권도 훈련 및 경기현장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의 운동지속, 운동수행능력, 운동스트레스 등에 대한 운동만족의 실효성을 밝힌 선행연구(강철우, 이창환, 정승훈, 2019; 김주연, 권철달, 2018; 문종숙, 최공집, 2018; 이용선, 이근모, 장승현, 2012)들은 태권도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운동만족이 주요한 심리요인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할 때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정서함양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유의미한 중재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선수개인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대한 지도자의 주요한 역할(김경렬 등, 2013; 김민정, 조광민, 2010; 서강석, 안창식, 2019; 오영택, 양명환, 2019; 윤정호 등, 2022; 이동준, 2017)과 더불어 운동만족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원우영 등, 2019; 이상일, 2021; 임해승 등, 2022; 정지영, 정승훈, 2022; 조송현, 2021; 현기진 등, 2017)들을 근거로 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증진에 대한 유용한 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일(2021)은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선수개인의 운동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주요한 선행변수임을 밝히며, 효과적인 운동만족 중재전략으로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 중재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연구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을 태권도라는 단일종목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들을 통용하여 운동만족 증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규명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을 지지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정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에 관한 H2를 검증한 결과, 품새와 시범종목 사이 경로계수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운동만족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이 품새 및 시범선수들에게 있어 다르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후 검증내용을 근거로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품새 및 시범종목에 따른 도출된 내용과 같은 차이는 코칭행동 평가에 대한 스포츠 유형별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공행 및 상호작용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상이하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공행종목(公行種目)과는 달리 상호작용종목(相互作用種目) 참여선수들이 민주적 또는 사회적 측면의 리더십 보다 전체적 측면의 훈련과 지시, 보상행동 등과 같은 리더십을 선호한다고 한다(황진, 김상범, 김병준, 김영숙, 2015; Terry & Howe, 1984). 그리고 스포츠 유형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리더십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자의 영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와 관련된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과도 밀접하게 관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공행종목인 품새와 상호작용종목인 시범 사이에서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다르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가설검증결과와 관련하여 태권도 경기현장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족이라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서술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변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 운동수행만족 간의 관계에서 검토(임해승 등, 2022), 펜싱(원우영 등, 2019), 태권도(이상일, 2021), 론볼동호인(이현정, 백재근, 2021) 등 대상 및 종목에 따라 해당변인들의 구성요인 간의 관계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밝히며, 직간접적으로 검증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해 선수-지도자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그에 대한 주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개별 종목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이 상이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겨루기, 품새, 시범 각 종목별 공행 및 상호작용적 특성에 따라 운동만족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개별종목 특성에 맞는 보다 유의미하고 실천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선수들의 운동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인 관계규명을 통해 태권도 선수개인의 경기종목에 따른 유용한 운동만족 증진전략 마련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MGA를 이용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고, 이후 그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설정된 연구가설 검증을 통해 태권도 선수의 운동만족에 대한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효성을 규명하였고, 더불어 품새 및 시범종목 사이에서 영향력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의 경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만족의 관계가 태권도 경기종목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향후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정서를 이끄는 과정에서는 겨루기, 품새,

시범 각각이 가진 종목유형 및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보다 유용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코칭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연구의 첫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해당연구에 관한 다각적 측면의 추가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근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 간 의사소통이 비언어적 요소뿐 만아니라 기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 말투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들과 운동만족 간의 심층적 관계규명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자료에 입각하여 도출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제 지도현장에 대한 참여관찰이나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자료들을 통해 각 종목별 지도자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중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우, 이창환, 정승훈(2019). 중학생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유대감, 선수 만족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태권도연구**, 10(1), 63-86.
- 김경렬, 김성규, 박명국(2013). 중·고등학교 골프선수들의 지도자 특성과 지도자신뢰, 만족 및 충성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1), 123-136.
- 김민정, 조광민(2010).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태권도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5), 223-234.
- 김영진, 정명규(2021). 태권도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 관계에서 전공분야의 조절효과. **무예연구**, 15(1), 133-153.
- 김은지, 정명규, 임신자(2018). 대학 태권도시범단원의 운동스트레스와 운동몰입, 운동만족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2), 43-58.
- 김은철, 전익기(2012). 고등학교 태권도 품새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가 운동만족과 수련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637-648.
- 김주연, 권천달(2018). 태권도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운동만족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361-371.
- 김지영, 주형철, 윤인애(2013). 무용교육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도자 신뢰 및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1-24.
- 문종숙, 최공집(2018).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자기관리가 운동만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2(4), 153-169.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강석, 안창식(2019). 골프지도자의 리더십이 운동몰입과 운동만족, 운동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골프연구**, 13(3), 109-128.
- 송남정,곽정현(2022). 대학생 태권도 선수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다집단분석: 겨루기와 품새를 중심으로. **국기원태권도연구**, 13(2), 43-52.
- 오영택, 양명환(2019).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운동만족 간의 관계에서 운동열의의 조절효과 검증. **국기원태권도연구**, 10(2), 153-170.
- 우종필(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우영, 김종식, 김대은, 김현륜(2019). 펜싱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유지 및 운동수행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1729-1737.
- 유용준, 정구인(2018). 축구 지도자의 코칭 언어가 축구선수의 팀 응집력과 운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9(1), 17-29.
- 윤정호, 곽현태, 한상일(2022). 지도자 리더십이 고등부 태권도 시범단원들의 스포츠자신감과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4(1), 83-90.
- 이동준(2017). 검도 지도자-참가자의 LMX와 지도자 신뢰, 운동만족, 운동몰입 및 지속적 운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3), 71-84.

- 이상우(2016). **골프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유형과 고객과의 관계의질, 미래행동의도와의 구조적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상일(2021).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수행만족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2), 125-139.
- 이용선, 이근모, 장승현(2012).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사회적 자본이 운동선수만족 및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1(4), 93-109.
- 이정학, 이지혜, 안선영(2018). 골프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유형이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골프연구**, 12(1), 95-110.
- 이현정, 백재근(2021). 생활체육 지체장애 론볼동호인이 지각한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유지 및 운동수행만족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1), 91-102.
- 이호열, 박재우(2012). 공무원 연수 체육프로그램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자의 스포츠 몰입 및 지속적 참여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4), 223-235.
- 임해승, 김종우, 신승호(2022). 엘리트스포츠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선수와의 관계유지, 운동몰입 및 운동수행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학검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20(1), 699-713.
- 정국현(2010). 태권도선수의 종목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운동몰입의 차이. **대한무도학회지**, 12(3), 237-250.
- 정명규(2020). **태권도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 효과성에 대한 다집단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지영, 정승훈(2022). 골프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의 스포츠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61(4), 189-209.
- 정태겸, 정명규(2021).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대한무도학회지**, 23(4), 45-58.
- 조송현(2021). 유소년 축구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선수의 지도자신뢰, 운동몰입,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4, 197-211.
- 최정일, 정명규, 임신자(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스포츠자신감, 셀프리더십과 운동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1(1), 37-51.

- 추나영, 배성우, 조송현(2013). 무용강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 제공자 평가, 신뢰,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1(1), 123-133.
- 황민경, 이성노(2021). 필라테스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수업만족과 운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60(4), 175-186.
- 황진, 김상범, 김병준, 김영숙(2015). **스포츠 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 현기진, 신승호, 유도상(2017). 검도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운동몰입 및 선수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5(3), 699-71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Cheladurai, P., & Riemer, H. A. (1997). A classification of facets of athlet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1, 133-15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rido, L. E., Abad, F. J., & Ponsoda, V. (2016). Are fit indices really fit to estimate the number of factors with categorical variables? Some cautionary findings via Monte Carlo simulation. *Psychological Methods*, 21(1), 93-111.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Sundaram, D. S., & Webster, C. (2000). The rol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378-391.
- Terry, P. C., & Howe, B. L. (1984). The coaching preferences of elite athletes competing at Universiade '83. *Canadian Journal of Applied Sport Sciences*, 9(4), 201-20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 Focused on the Multi-group Analysis of Taekwondo Sports Events

Kim, Young-Jin(Kyunghee Univ) · Jung, Myung-kyu(Sehan Univ) · Jeon, Min-woo(Kyunghee Univ)

This thesis explored the difference among Taekwondo sports ev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as part of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the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of Taekwondo athletes. To serve the complete objective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platform (Google Forms) of the Taekwondo athletes as a population (579 copies for final analysis), and the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FA, MG CFA, SEM, MGA, and so on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8.0 & AMOS 21.0. Through the foregoing analysis process, this study confirmed a significant ga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omsae and demonstration events in terms of influence, in addition to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As a result, the study was able to make a deductio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aches' non-verbal communication perceived by athlete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satisfaction levels of Taekwondo athletes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ports events.

Key words: Non-verbal Communication, Exercise satisfaction, MGA

논문투고일 : 2022.09.30.

심사일 : 2022.11.08.

심사완료일 : 2022.11.19.